



# “개인의 도덕적 자발성이 사이버 공간 폐해 막을 수 있을 것”



이경식 부산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세상이 바뀐다는 말이 이제는 진부하게 느껴질 만큼 세상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변화의 종류를 말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이며 속도 또한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다. 이런 현대 사회의 변화 중 가장 특징적인 면을 나타내는 용어로 필자는 ‘정보화 사회’와 ‘사이버 공간’을 택했다.

‘정보화 사회’란 산업사회와는 달리 정보의 생산, 저장, 분배에 관련된 산업이나 활동이 경제의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등장하고, 그 결과 컴퓨터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등을 비롯한 정보 기술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생활영역을 지배하는 사회로 정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보 사회에서 정보의 이동과 저장은 주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컴퓨터를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며, 정보화 사회를 논하는 많은 이들에게 교과서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다니엘 벨’ 조차 ‘탈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라는 용어로 정보 사회를 막연하게 예측했을 뿐이다. 급속한 변화는 많은 사람들을 준비되지 않은 환경으로 인도했고 부작용과 혼란이 뒤따르게 됐다. 당연히 정보통신윤리가 강조됐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뀐 것은 환경이지 인간이 아니다. 생명체인 인간이 기계처럼 급속하게 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2500여년 전, 공자(孔子)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생활환경이 지금과는 다르지만 인식의 주체인 공자가 지금의 사람과 다른 감각과 사유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듯이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주체는 사람인 것이다.

그렇다면 정보통신윤리의 제정이 시급한 현시점에서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한 옛 성인들의 체험을 바탕으로 성립된 우리의 전통윤리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적재산권, 불법소프트웨어의 범람, 해킹, 특허권 등 과거의 전통윤리가 다루지 않은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예절의 형식은 변하더라도 정

신은 변하지 않듯이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정을 만드는데 기준이 될 만한 전통윤리의 덕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 인능홍도 비도홍인(人能弘道 非道弘人)

윗 구절은 논어 '위령공편'에 나오는 것으로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한 구절로 당연히 인간의 존엄성까지 내포한 문장이다. 밀려오는 서양 문물에 대항에서 일어난 우리의 동학이 표방한 인내천(人乃天)과 상통하는 구절이다.

인간이 즐길 수 있는 물질적 생산력이 극도로 발전하고 인간의 권리를 세세하게 구분해 법으로 보장해 놓은 현대사회의 문제점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인간의 가치가 떨어지고 기계에 종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먼 옛날 찰리 채플린이 1936년 만든 <모던 타임즈>의 자세한 장면을 상기시키지 않더라도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것은 기계화된 인간의 모습일 것이다. 그렇다면 산업사회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는 탈산업사회로 표현되는 오늘날에는 과연 산업사회의 문제점을 다 극복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이다.

거대한 사이버 공간에서 인간의 주체성이나 존엄성을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 되었다. 날로 넘쳐나는 음란사이트에 나오는 여성은 쉽게 주고받는 사진파일이나 동영상 파일로 변형돼 몸을 파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값싸게 상품화돼 버렸다. 매일 보내지는 스팸 메일의 홍수 속에서 인간이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게 되며,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들끓는 여론의 소용돌이 속에 쉽게 휩쓸릴 가능성만 커졌다. 물론 예전과 비교해 발전된 모습도 많은 것은 인정한다. 억울한 일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법률서비스나 각종 게시판, 인권단체 등 인간의 존엄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장치도 많이 마련됐으며,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신장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명암(明暗)이 너무 뚜렷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더 훼손될 가능성 또한 커졌고, 비합리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많다는 것이다. 가끔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자살 사이트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컴퓨터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매몰되는 경험을 한 두 번쯤은 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세한 행동지침이 아니라 내면에 깊숙이 간직된 바른 가치관이다. 음란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아무리 만들어도 심성이 빼돌려진 청소년을 사회가 계속 양성한다면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자살 사이트를 경찰이 아무리 단속하더라도 발본색원(拔本塞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상기해 본다면 컴퓨터를 다루는 인간의 가치관을 바로 잡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인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가?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인간의 문제다. 기술문명은 인간이 사용하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사이버 윤리가 중요시되는 것은 사이버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은 아니라는 정신은 인간의 존엄성도 전산화 작업의 대상으로까지 전락한 오늘날 사이버 공간에서의 부정적인 요소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신독(慎獨)

신독(慎獨)이라는 말은 글자 뜻 그대로 '혼자 있을 때 삼간다'는 의미다. 대학과 중용에 나오는 단어인데 조선조 성리학자들이 도덕적 심신수양에 있어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겼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 공간에서 인간의 내면의 문제를 깊이 다루는 것은 동양 사상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서양의 철학에서도 인간의 내면을 연구한 흔적이 없는 것은 아니며 주로 사유체계나 감정의 영역을 다룬 것이지만 동양처럼 철저하게 도덕적인 탐구를 시도한 예는 그리 많지 않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그리스의 현자(賢者)들의 철학의 공통점은 폴리스라는 도시국가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도시국가 내에서의 인간을 연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했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에 관한 이론이 발달해 왔다. 인간이란 존재의 내면을 깊숙이 탐구하는 근대에 와서도 서양의 철학자들이 탐구했던 것은 이성과 감성이라는 인식체계이지 도덕적 심성이 아니다.

서양의 대표적인 종교인 기독교도 신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참된 구원을 찾는다. 신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구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신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자신과 신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것은 인격적인 절대자와 사회적 관계들을 배제한 상태의 인간의 도덕적 심성을 연구하고 닦는 것은 동양 특히 우리 전통 윤리의 특징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홀로 있을 때 도덕적인 수양을 강조하는 신독(慎獨)은 우리 전통 윤리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현 시대에서도 꼭 필요한 덕목이다.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에서 익명성이란 많은 장점도 있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해 많은 부분을 솔직하게 내놓을 수 있고, 때로는 아주 과감해 질 수도 있으며, 묻고 싶은 것을 속 시원하게 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을 숨길 수 있다는 여건은 그만큼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우리들은 사이버공간에 진입할 때 육체라는 거추장스러운 껍데기를 벗어놓고 들어간다. 단지 필요한 정보만 보고 다운로드 받는다면

사실 별 문제는 없다. 문제는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채팅실에 들어갈 때, 나를 드러내고 또 다른 네티즌과 소통을 원하는 순간에 발생한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보여주기보다는 아이디(ID)나 아바타(avatar)를 사용한다. 아이디는 텍스트로 이뤄진 가상 공간에서의 내 이름이고, 아바타는 그래픽으로 처리된 나를 나타내는 이미지다. 그런데 이 아이디와 아바타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처럼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 힘든 고정적 신원이 아니라 사용자 뜻대로 어느 때고 바꿀 수 있는 매우 가변적인 신원이다.

자신이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아이디는 언제나 고칠 수 있는 상황에서 인간은 더 약해질 수 있다. 물론 특정 분야에서 인정받은 아이디는 쉽게 바꾸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극소수이다. 각종 게시판에 근거없는 비판이 난무하고, 남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해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등 익명성의 폐단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신독(慎獨)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조선조 성리학자들이 사용했던 수양방법을 오늘날 그대로 답습하자는 것은 아니다. 분명 시대는 변했다. 하지만 칸막이가 쳐진 게임방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이디로 사이버 공간을 넘나드는 현대인이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을 신독(慎獨)으로 재해석한다면 전통 또한 굳이 사장시켜야 할 잡동사니는 될 수 없을 것이다.

### 상열이기락(相悅以歌樂)

삼국사기 진흥왕 37년조 화랑도에 관한 기록에 나오는 구절이다. 상마이도의(相磨以道義)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다. 해석하자면 '도의로써 서로 연마하고, 노래와 음악으로써 서로 기뻐했다'이다. 눈에 띄는 것은 개인적인 수양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불어서 생활했다는 것이다. 화랑도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듯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큰 역할을 한 단체이다. 여기서 그 기원과 중요인물을 적는 것 보다 단체의 구성과 서로 연마하고 기뻐했다는 생활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화랑도는 국선-화랑-낭도로 구성된다. 총책임자인 국선과 여러 명의 화랑은 귀족 출신이지만 낭도는 평민의 자제들이었다. 엄격한 골품사회인 신라에서 평민과 귀족이 한 집단으로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곳이 화랑도인 것이다. 그들은 이 단체에서 자기만의 수양과 출세를 지향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영유했던 것이다.

특이한 개성을 일종의 미덕으로 여기면서 철저한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N세대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물론 N세대들은 PC통신,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여권신장, 경제동향, 취업난 등의 현실적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비판과 더불어 그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이 사회의 여론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견 표출로 서로의

견을 공유하고 교환하며 사고의 확장 또한 용이하게 이뤄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지나치게 개인적인 입장에 서서 상대방이나 공동체를 비판하고 자기 의견을 표출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N세대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는 이기주의적인 생활패턴은 상생(相生)의 문화를 멀게 만들어버렸다. 게시판에 나와 있는 의견이 자신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욕설과 야유조로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하는 풍조는 그리 드문 현상만이 아니다.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공동체 전체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풍조도 만연해 있으며 컴퓨터 바이러스를 불특정 다수에게 살포하는 행위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덕의 상실〉의 저자인 매킨타이어는 개인의 차원에서는 '나에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심미적 주관주의로 그리고 사회의 차원에서는 '성공적인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관료제적 합리주의로 양극화된 현대 서양 사회를 비판한다.

매킨타이어가 유명적이라고 폭로한 서양의 유명과 망명들을 붙잡으려고 혈안이 된 우리의 처지도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해결책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플리스리는 도시 공동체에서 발생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德)에서 우리의 해결책을 찾기에는 역사와 문화가 다르다는 조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도의로써 서로 연마하고 노래와 음악으로 서로 기뻐했던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두고 굳이 서양의 해결책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화랑도가 계급적 화합을 추구했다면 계급적 모순을 은폐시킨 측면도 없지 않다. 여기서 강조하는 화랑도의 정신은 날카로운 비판정신을 무디게 하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추구하는 화합정신을 강조한 것이다.

상생(相生)의 정치를 하지 못하는 정치권을 우리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간에서 정치권과 똑같은 상극(相剋)의 문화가 성행해서야 되겠는가?

### 재세이화(在世理化)

재세이화는 삼국유사 고조선편에 홍익인간과 더불어 기록된 문구이다. 환웅(桓雄)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이치로써 인간 세상을 다스려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인데 그 뜻을 소상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이(理)는 '다스리다'는 뜻을 의미하는데 같은 의미를 지닌 치(治)와는 차이점이 있다. 치(治)는 법률과 제도로 다스린다는 의미이지만 이(理)는 이치로써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그 의미를 확장시켜 본다면 이치로써 인간을 깨우쳐서 윤리 규범을 지키게 한다는 뜻이다. 치(治)가 강압적이고 타율적인 의미를 내포한다면, 이(理)는 개인의 도덕성을 함양시켜 자발적인 규범준수를 추구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도덕보다는 법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다원화된 사회에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합의하고 구속력을 가지는 도덕 규범을 찾는다는 자체가 무리이기에 법률이 사회의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 법으로써 사람들을 다스리다보면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팽배해지게 된다. 충분한 내면적 도덕성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감시하는 통제가 느슨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쉽게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요즘음 들어서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지난 95년에 PC통신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윤리문제가 대두되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정보통신 윤리강령」을 선포한 후 5년 후에 다시 네티즌 윤리강령을 만들어 선포한 것은 사이버 범죄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날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불건전정보 유통행위와 사이버 성폭력 명예훼손 도박 등 사이버범죄를 막아보기 위해서 사이버 수사대를 확장 운영하고 윤리강령을 계속 제정하고 있지만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자율적인 도덕성의 함양의 더욱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물론 꼭 사이버 공간에서만 자율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현대사회의 특성이 사이버 공간에 옮겨졌다면 현실 세계에서 도 자율적인 도덕성 함양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불법행위의 파급 효과가 상상을 초월하기에 더욱 신중한 행동이 필요하다.

인터넷은 인류가 지난 100년 동안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터넷을 이렇게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인류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신대륙으로 일컬어지는 사이버스페이스(가상공간)는 각종 비윤리적인 행위로 얼룩져서 우리 인류의 장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익명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인터넷 사이트나 PC통신을 이용한 음란 포르노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도박 사이트를 비롯한 음해 사이트 현대인에게 심각한 정서적 장애를 던져주고 있다.

21세기 정보화사회, 인터넷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참으로 살아갈 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다.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어려운 숙제라 할지라도 그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결코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네티즌 윤리강령을 만든다고 해서 네티즌의 윤리가 확립되는 것은 아니다.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천의지는 남이 강압적으로 강요해서 만들 수는 없다. 자기가 느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개인의 도덕적 자발성을 신장시켜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재세이화(在世理化)의 정신은 사이버 수사대를 확장시켜 범죄 근절에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엄청난 혼

란을 겪고 있다. 그 혼란 중의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다. 서구 문명의 급격한 유입은 이제 옛말이 될 정도로 우리는 세계 체제에 편입되어 버렸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의 문명에 노출됐기 때문에 국적없는 미아처럼 혼란을 겪고 있다.

### 전통윤리와 사이버공간의 윤리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공감해 구속력이 있는 윤리 규범이나 가치 체계는 이미 사라졌으며 법적 구속력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야기하는 행위 규범은 비슷할지라도 자신의 정체체가 숨겨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행위 양식이 천차만별이라면 구체적으로 작용되는 윤리 규범이라 단정짓기 어렵다. 지금 우리는 이 사회의 안녕(安寧)을 보장할 수 있는 윤리 규범을 창출해야만 한다. 강압적인 법적 구속력에 의지해서는 사회의 범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개인의 자발적인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규범의 합의가 절실한 상태이다. 특히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가능한 인터넷의 사용이 보편화된 시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이 시대에는 분명 새로운 행동 규범이 필요하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지켰던 일상 규범을 답습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이 사회를 움직이는 주체는 인간이다.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윤리규범의 근본정신이 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윤리의 근본정신을 계승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2000년 6월 15일 발표된 네티즌 윤리강령에 나오는 기본 정신은 '사이버 공간의 주체는 인간이다. 사이버 공간은 공동체의 공간이다. 사이버 공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열린 공간이다. 사이버 공간은 네티즌 스스로 건전하게 가꾸어 나간다'이다.

앞에서 서술한 우리 전통윤리의 기본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 구체적인 행동 강령은 옛 규범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지라도 기본 정신은 우리 전통 윤리가 추구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오늘날에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전통을 가진 우리가 굳이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면서 외국의 문명에 편입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우리 전통을 발전시켜야 할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는 분들에게 나는 BC 2333년 아사달에 도움을 청하고 단군조선을 개국한 사실을 기록한 삼국유사에 홍익인간과 더불어 기록되어 있는 재세이화(在世理化)가 2000년에 제정된 네티즌 윤리강령의 기본 정신에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싶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민족의 구분을 설정한다는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는 분들에게는 지난 6월에 치러진 월드컵 때 전 국민이 합심해 외쳤던 '대한민국'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다. 